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 김규찬(최효자) 김기택(배숙자) 김미희 김병율(이영숙) 김준구(이소은) 김지현(유소정) 박금영 박부웅(최귀남) 박혜진(장동민) 방복순 방석태(차옥자) 배경철(김순화) 석애자(진취부) 송형기(김현숙) 윤병호(양영욱) 윤 숙 윤영준(박진숙) 이상희 이한철(박희영) 이향교 장운주(김진진) 정기성(심순옥) 정옥순 정은찬 천세혁(영영분) 현영란 최기훈(정계숙) 최경규(김미영) 하세련 허봉선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김규찬(최효자) 김준구(이소은) 박금영 박희영(이한철) 배세연(이경순) 송다혜 윤병호(양영욱) 윤 숙 이미자 이한철(박희영) 전순봉 정기성(심순옥) 최기훈(정계숙) 하세련 허봉선 **홍한표**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재호(최지은) 이필레 김경엽(손정아) 김민수 김병율(이영숙) 김정연B(강준식) 김중익(박애순) 김창길(백경자) 김춘희 박부웅(최귀남) 박순자(이동수) 방복순 방석태(차옥자) 방현욱(신영신) 석애자(진취부) 손영화(유호근) 송순람(김원경) 안금자 임영분(천세혁) 유은자 윤정자(최성현) 이미자 이순철(강봉석) 이월숙 이일로(박현숙) 이준문 이한철(박희영) 전순봉 채영민(서시철) 최상길(이미향) 하세련 허봉선 **황영욱 영아유지부 유초등부**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성 김민준 김준구 박민서 박순자 박희영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양영욱 양일석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자 이상희 이소은 이아론 이육남 정승현 정혜지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욱

♠ **월정헌금**

주간 성경연구

32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창세기 3장 14절 ~ 24절		
월요일	창세기 4장 1절 ~ 15절	목요일	창세기 6장 1절 ~ 10절
화요일	창세기 4장 16절 ~ 26절	금요일	창세기 6장 11절 ~ 22절
수요일	창세기 5장 1절 ~ 32절	토요일	창세기 7장 1절 ~ 12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준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명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혁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재호			
	전 도 사	이필레			
	교육전도사	김선희			
찬양대	지 위 자	할 렬 루 야 : 김한나 시은 · 에 덴 : 최원지	흐 산 나 : 김안나 질 :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하유리 김미희 최유경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 리 스트	김안나, 김정아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민숙 A X 국 : 김해월 A X 국 : 이분옥 모 장 비 크 : 홍두표 강순영	
		수 리 남 :	안석렬 이성욱		
		미 국 :	김다니엘		
		미 국 :	최옥희		
	협력선교사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맥 시 코 : 김홍기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가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2. 07. 31.

엘리바스의 이상(理想)	설교: 이진우 목사
--------------	------------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계시이며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물론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도 분명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 깨달게 하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 이것을 모든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받은 은혜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면 성도는 그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다른 자들을 참부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 이유는 엘리바스는 직접 하나님의 영을 통해 계시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들려주며 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언행은 참으로 부적절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성도는,

1.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엘리바스는 자신의 신비한 영적 경험을 근거로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영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엘리바스는 그 영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때 들었던 목소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엘리바스가 평소에 생각했던 인과응보의 법칙이 옳은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받았다는 계시는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이 당한 고통이 음 자신이 지은 죄악의 결과임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음을 정죄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라는 신적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관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신이 체험한 개인적인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참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굴복시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비한 영적 체험 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고양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개개인의 영적 체험은 나를 위한 것이지 너와 우리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요 계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욱 알고, 깊이 깨달아 감으로 자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2. **사탄의 간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장하는 사람을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바스 역시 “한 영”의 형상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형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여 자신이 경험한 개인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지금 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음기를 통하여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체험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주석가를 치마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도 음을 시험해 볼 것을 권했던 악한 존재로서 고난당하는 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지금 그의 친구들을 자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고 타락시키기 위해 이처럼 때로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단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의심 없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러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성령의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말씀과 기도 가운데 행하며 악한 자들의 거짓 주장에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의 뿌리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완전한 계시이고 온전한 계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일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는 이유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날도 성도 개개인에게 주시는 신비한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영적 체험은 믿음이 연약한 나를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열매가 맺어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그 어떠한 영적 체험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확실하고 온전하며, 믿을 만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은 통찰력과 지혜로 참과 거짓을 온전히 분별하며, 선한 열매를 맺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하게 하고, 모든 자들에게 사랑과 겸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8 - 32

2022. 08. 07.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치료의 광선을 비추소서” (말라기 4장 2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 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예배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10시	인도: 이 진 우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묵 도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384(통434)장 다 같 이
(Praise)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대 표 기 도 [1부]채 만 기 집사
(Prayer) [2부]배 경 철 장 로
[3부]윤 영 준 장 로

성 경 봉 독 욥기 5장 1~16절(구약P.765) 인 도 자
(Scripture)

찬 양 [1, 2부] 달고 요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같 이
(Anthem) [3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전선미)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위로하는 일의 어려움 이 진 우 목 사
(Sermon)

헌 금 봉 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Offering)

새 신 자 환 영 다 같 이
(Introduce new comer)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406(통464)장 다 같 이
(Praise)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같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회: 임 만 순 장 로
묵 도	할렐루야찬양대
성 시	시편 71편 6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찬 양	찬송가 278(통336)장 다 같 이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기 도	김 종 진 집 사
성 경 봉 독	디모데전서 3장 14절~4장 5절(신약 p.339) 사 회 자
찬 양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금욕주의에 대한 경계 이 진 우 목 사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288(통204)장 다 같 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축 도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다 같 이
기 도	[다음주:양영옥권사] 백 남 실 권 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6장 5~13절(신약p.7) 인 도 자
설 교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 아 유 치 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10:00 분당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0:0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광고

- [중식제공 및 헌신자] 하반기 사랑으로 중식을 섬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본당 입구에 있는 신청란에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율배식 시 꼭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학교 여름행사 일정] 중고등부 수련회가 11일(목)~13일(토)까지 열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8월 11일(목)~13일(토)	교회 로템나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청년부	8월 19일(금)~20일(토)	교회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 [수련회봉사자] 청년부 수련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여름행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원모집] 아래와 같이 주니어 셀라 단원을 모집 합니다(8월 14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이상(주일학교 학생) • 시간: 매주일 오전 11시 20분 ~ 12시 20분
 - 문의: 박진숙 집사(010-8792-9140)

- [교역자휴가]
 - ▶ 김제호 목 사 : 8월 22일(월) ~ 26일(금)
 - ▶ 이필레 전도사 : 8월 29일(월) ~ 9월 2일(금)
영육간에 침이 있어 하반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8월 행사 안내]
 - 8월 11일(목)~13일(토)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 19일(금)~20일(토) 청년부 여름수련회
 - 21일(주일) 장학부모임
 - 28일(주일) 2022년 2학기 장학금전달식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 여전도회월례회 3부 예배 후/본당

◎ 담임목사동정

- 부천성광교회(장민호 목사 시무) 청년부 비전세미나 인도 13일(토) 오후 7시 30분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김성찬 학생	김병현 청년	윤조훈 장로 이연숙 권사	김명숙 권 사	소망2 고척6,7,9 에스더 여전도회
다음주	석애자 권 사		최성현 장로 윤경자 집사	김순화 권 사	사랑1 고척10 사랑2 개봉1 루디아 여전도회

8월	순서	1 부		2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사회	기 도	기 도	기 도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1주(7일)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배경철 장로	윤영준 장로	임만순 장로	김종진 집사	백남실 권사	
2주(14일)	강영성 장로	김경엽 집사	임만순 장로	강영성 장로	박권재 장로	김형국 집사	양영옥 권사	
3주(21일)	담 임 목 사	박종삼 집사	박권재 장로	김병을 장로	최성현 장로	방원식 집사	박희영 권사	
4주(28일)	최기훈 장로	최상걸 집사	최성현 장로	최기훈 장로	윤영준 장로	채만기 집사	이오순 권사	
예배안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